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대림 제1주일
제32권 1호(나해) 2011.11.27

[묵상]



광야의 예언자 엘리야(15c, 디에릭 보우츠, 성 피터성당, 벨기에)

대림은 기다림입니다.

아기 구세주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주님께서 심판관으로서 다시 오심을.

대림은 깨어있음입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대림은 주님의 길을 준비함입니다.

또다시 누추한 마구간에서
주님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되지 않은 저희를 보시고
구세주께서 당황해 하시지 않도록.

세상의 종말은 몇 훗날의 일이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찾아오는 지금의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마지막 순간이 언제이든, 어떻게 되든지
당황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도록
깨어 준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림은 주님 맞을 준비로
조심하고 깨어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일상이어야 합니다.

- 柜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 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 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전신자 성경통독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후 8:00 오전 10: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째주) M.E. Sharing(3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성령기도회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 울뜨레아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 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 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 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 403-7345
사무실 : (310) 326-4350 Ext.100 Fax: (310) 326-4360

토 요	(연)권순봉 요안나, 강용운 요셉 & 강양근
특전미사	(생)성낙호 요셉 & 성실비아
주 일 낮 미사	(연)유점이 베로니카, 오진 베드로, 고준희 제임스, 박부원, 엄익찬 안토니오, 윤춘의 스킨라스티카, 신현태, 이정기 클레멘스 & 이복래 마사 & 김홍배 루까, 이희곤, 김현숙 마리아, 신영순 로사, 이상용 원선시오 & 이주영 베드로, 김명옥 로즈마리 & 오준석 요셉, 이덕철 루까, 김완태 다미아노 (생)김은 안나, 엄영숙 마리아, 김 앤디, 토런스 북구역 가정들, 김영, 김제민 안드레아, 강지은 안젤라, 김형순 다니엘 & 김호인 벨라텃타, 차인수 안드레아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63,16ㄷ-17.19ㄷ;64,2ㄴ-7

화답송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구원하소서.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커룹들 위에 좌정하신 분,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당신 권능을 떨치시어 저희를 도우려 오소서.㉠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위해 키우신
인간의 아들에게 손을 얹으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리다.㉠

제 2독서 코린토 1서(1 Corinthians) 1,3-9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이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주소서.㉠

복 음 마르코(Mark) 13,33-37

영성체송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그 열매를 내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124	129	124
봉헌	257	261	129
성체	292	304	280
파견	124	131	131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1부 하느님의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요한 1,1.14)

말씀하시는 하느님

말씀의 그리스도론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시는지 그 방법
을 이스라엘이 체험하게 하시고, 하느님께서 친히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그 방법을
날로 더 깊고 더 분명하게 깨달아 만민에게 더욱 널리 알리게
하셨다(시편 22[21],28-29;96[95],1-3;이사 2,1-4;예레
3,17 참조.) 하느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맞추어 “자신을 낮
추신”것은, 말씀의 강생을 통하여 최고도로 이루어집니다. 창
조를 통하여 표현되시고 구원 역사 안에서 당신 자신을 알려
주시는 그 영원한 말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인에게서
태어난”(갈라 4,4)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은 일차적으
로 담화나 개념이나 규칙들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
리는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유일무이한
역사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최종적인 말씀이십
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쩌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윤
리적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삶에 새로운 시
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이, 이러한 인식이 끝
임없이 새로워질 때 믿는 이들의 마음 안에 인간 자신의 이성
적 능력으로나 상상력으로는 생각해 낼 수 없었을 하느님의
주도권에 대한 경탄이 일게 됩니다. 이것은 전대미문의 새로
운 일이고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이 사
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한 1,14ㄱ). 이 말들은 수
사학적 기교가 아니라 직접 겪은 체험입니다. 이 말을 전하는
것은 목격 증인인 요한 성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
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
신 영광을 보았다.”(요한 1,14ㄴ). 사도의 신앙은, 영원하신 말
씀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셨다고 증언합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진정 인간의 말들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12). 교부들과 중세의 전통은 이러한 “말씀의 그리스도론”을
바라보면서, 말씀이 “축약되었다.”는 의미 깊은 표현을 사용했
습니다.

교부들은 하느님의 새로운 길들이 어떻게 구약 성경 안에 이
미 예언되었는지를 보여 주기 위하여, 그들의 구약 성경 그리
스어 번역본에서 바오로 성인도 인용하는 이사야 예언자의 한
단락을 찾아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말씀을 짧게 만드셨다. 그것을 축약하셨다.’
(이사 10,23; 로마 9,28) …… 성자께서는 바로 말씀이시고 로
고스입니다. <◆계속>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벌써 25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보좌신부 시절, 당시 주임 신부님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신부님!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자신과 주변에 깨어 있어야겠지.” “그런데 우문(愚問) 같지만 젊어서 너무 일찍 자신과 세상을 깨달으면 세상사는 게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요?” 그때 주임 신부님은 입가에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찍 깨달을 수만 있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야.” 지금 생각하면 선문답 같은 대화였습니다. 이해를 다하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더는 질문하지 않았습니

다. 지금도 가끔 그 신부님의 말씀이 인생의 묵상 주제처럼 떠오릅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바르게 깨달아야 진정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文豪) 톨스토이는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삶의 본질은 육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그는 부유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 한 시골의 초라한 간이역에서 폐렴으로 객사하기까지 우여곡절의 치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의미란 오직 ‘선’에 대한 끝없는 회구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선은 오직 진리(眞理)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가치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물론 인간의 모든 사회적 죄악에 대한 속죄를 기본 전제로 말입니다. 그래서 임종을 맞아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진리를... 나는 영원히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대림절을 맞이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우리말에 ‘조심하다’는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이나 행동에 마음을

쓰는 것과 마음에 새기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도 온전한 정신 상태로 돌아오고 생각이나 지혜 따위가 사리를 가릴 수 있게 되며 잠, 꿈 따위에서 벗어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대림절에 강조하는 ‘깨어 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작정 미래를 기다리고, 지나간 과거에 연연한 것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깨어 있음은 오히려 현재의 순간에 최선을 다해 머무는 것이 아닐까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위대한 기다림을 불러넣어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지금 상태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아닐까요? 지금 내가 보는 것, 느끼는 것, 깨닫는 것, 가진 것, 그것이 결코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있음을 아는 것이야말로 바르게 깨어 있음의 시작이 됩니다. 세상의 것에 너무 기대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깨어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설사 그것이 나 자신이 되더라도 말입니다.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은지 릴리안	신덕례 데레사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김태형 가브리엘	이상철 크리스토퍼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금자 데레사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진지요 글라라	이호미 엘리사벳	박희자 마리아
제1독서자	김태형 가브리엘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박혜경 레나타	이순자 비비아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2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살천하의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대림 제1주일

대림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을 준비하고, 재림할 구세주를 기다리는 시기로서, ‘예수 성탄 대축일’ 전의 4주간을 말합니다.

교회는 대림 시기로 한 해의 전례 주기를 시작합니다. 즉 교회 달력으로는 대림 첫 주일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림(待臨)’은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의미로서, ‘도착’을 뜻하는 라틴어 ‘아드벤투스(Adventus)’를 번역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천 년 전에 이미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례를 통하여 매년 되풀이함으로써, 그분께서 이루신 구원의 신비를 새롭게 기념합니다.

- ◆ 성시간 : 12월1일(목) 저녁미사중 *진행: 토런스 서구역
- ◆ 병자 영성체 : 2일(금) 오전 9시30분부터
- ◆ 성모신심 미사 : 3일(토) 오전 8시30분
- ◆ 대림 합동 판공성사 : 12월13일(화)
 - 참회에절 : 오후 7시30분
 - 고해성사 : 오후 8시부터(주일학교 성사일정 같음)
 - 대림시기 중 드리는 고해성사는 판공성사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미사전후에 드리는 고해성사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대림특강

- 일시 : 대림절을 맞아 제1주일(27일)의 토요일특전미사 / 아침미사 / 학생미사(한국어) / 낮미사 등 네차례 미사강론 중에 특강하십니다.
- 강사 : 이요한 신부(LA 성 그레고리 성당)
- 이장환 본당 신부님 시카고 대림특강 : 27일~29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성 정하상 바오로 성당 두곳.

◆ 독감 예방주사 2차 무료 접종

지난주일 접종후 40인분의 여분이 생겨 추가 접종합니다.

- 일시 : 오늘주일(27일) 오전 9시30분 미사후 회의실
- 대상 : 만18세 이상, 계란 알러지가 없고, 감기기운이 없는 분, GBS(심한 마비성 질환) 병력이 없으신 분

◆ 백삼위 성모회 연차총회

- 일시 : 12월2일(금) 오후 7시, 강당
- 문의 : 최길숙 요세피나 ☎(310)738-4788

◆ 수도자 은퇴기금을 위한 2차 헌금

12월4일(첫주일)은 LA 대교구가 매년 모금하는 수도자 은퇴기금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매달 첫주일에 봉헌하는 자선헌금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교우들께선 이날 따로 마련된 봉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业协会 무료 음식봉사

- 일시 : 12월4일(주일) 낮미사 후 친교장
- 전신자들에게 무료로 점심(추어탕식 혼합탕) 제공
- 불우교우돕기 성금모금에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양业协会 오세원 아타나시오 ☎569-0482

◆ 백삼위 골프회 송년 토너먼트

- 일시 : 12월10일(토) 오전 9시
- 장소 : 라미라다 골프코스
- 문의 : 이남현 막시모 골프회장 ☎(213)272-3598
- * 한해를 마감하면서 백삼위 골퍼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순례 추가 신청

- 일시 : 2012년 1월16일(월)~19일(목) 3박4일
- 경비 : \$1,000(1인당 하루팁 \$10 별도)
- 인원 : 추가인원 0명 * 신청금 \$100
- 문의 : 금영도 베드로 종교교육분과장 ☎(213)505-2941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1월27일(주일) : P.V. 3반(배추된장국 \$3)
- 12월4일(주일) : 양业协会(추어탕식 혼합탕 \$무료제공)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태홍	고천용	권태만	김원호	김재영	김진숙
	김충섭	김형순	남성철	문충한	박기돈	박완철
성전헌금	신순철	오희중	우영희	유경자	육근주	윤석구
	윤 켄	이문중	이민상	이희영	전시웅	조준제
	최수복	최현찬	한연만	한장환	황지영	
합계 : \$3,415						
미사헌금 : \$2,803						
	강태홍	고천용	권태만	김원호	김충섭	김형순
	남성철	문충한	신순철	유경자	이문중	이민상
	이일길	이희영	조준제	최수복	한연만	한장환
	황지영					
합계 : \$1,650						

공지사항

◆ 주일학교 Youth Group '아가페' 기금모금 성물판매

- 일시 : 12월4일(주일) 학생미사/낮미사 후
- 목적 : 봉사활동 및 친교
- 품목 : 크리스마스 선물용 팔찌목주, 귀걸이 등등...
- 문의 : 황선희 그레고리오 ☎(424)903-6637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백삼위 서예반 '서경회' 회원모집

- 좋은 취미생활로 아름다운 노후에 활력을 주는 서예- 관심 있는 교우들을 초대합니다.
- 모집대상 : 한글반, 예서반(한문) 사군자반
 - 지도 : 박태홍(일호 : 한국예총 미주서예가협회 회장)
 - 문의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대림 제1주일부터 영어미사 경본이 바뀝니다.

새 전례력이 시작되는 11월27일 대림 제1주일부터 북미주 모든 가톨릭교회에서는 개정판 영어미사경본을 사용합니다. 현행 매일미사 12월호부터 최종 교정을 거친 바뀐 영어미사 경본(주일미사)으로 출판되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소식

◆ 영화와 함께 하는 피정(Retreat with Movie)

- '영화와 함께하는 피정'은 대중영화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체험해 보려는 시도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 일시 : 12월10일(토) 오전 10시~오후 2시
 - 상영영화 : '행복을 찾아서'(The Pursuit of Happyness)
 - 장소 : 성 프란치스코 성당 ☎(310)324-8159
 - 지도 : 황광우 요셉 신부(콘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 피정비 : \$20(간소한 김밥제공)
 - 2012년 일정 : 1~5월 매달 세번째 토요일

◆ 남가주 ME 송년파티

- 일시 : 12월17일(토) 오후 6시
- 장소 : 레이크우드 커뮤니티센터
- 내용 : 추억이 있는 분당별 발표 경연대회, 경품 푸짐
- 주관 : 남가주 한인 ME 운동본부
- 문의 : 백삼위 ME대표부부 정동호 하삼바오로 & 정병옥 올리아 ☎(310)780-9055

◆ 이나시오 성인 영신수련 4박5일 침묵피정

- 일시 : 2012년 1월11일(수)~15일(주일)
- 장소 : Marywood 피정센터(오렌지카운티)
- 피정지도 : 이인주 신부(예수회)
- 참가비 : \$380(독방), 선착순 20명
- 주최 : 미서부지역CLC(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
- 문의 : 최아우렐리아 ☎(562)233-7163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살려주는 믿음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소공동체 11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 920-5153	배태임 안나 961-0942 11/11(금)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정웅 요한 539-3377 11/5(토) 오후 7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김충섭 마틴 533-1435 11/5(토)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심재은 클레멘스 213-760-7766 11/12(토) 오후 5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박순자 안젤라 201-320-9930 11/10(목) 오전 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남구역 합동 반모임 11/18(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남구역 합동 반모임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남구역 합동 반모임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위너 스프링 온천 895-8624 11/19-20(토~일)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유명련 마리아 985-2882	김금자 데레사 539-9526 11/12(토) 오후 7시, 성당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944-2737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정희 베네딕타 384-3289	송근섭 발렌티노 377-0727 11/11(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김관기 라파엘 866-8778 11/19(토)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문종 바오로 796-6763 11/11(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박진숙 엘리사벳 562-860-8499 11/8(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11월 사목회 오후 1시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일하며 얻은 평화

하느님이 계심을 믿고,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설명하기 어려운 목마름 같은 것이 있었다. 내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특히 내가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회사 일 속에서 그런 평안을 갖고 싶었다. 이런 생각은 세례를 받은 직후는 물론, 신앙생활의 해가 거듭되어도 늘 변함없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믿음의 깊이가 덜 한 탓이었지, 혹은 언젠가 깨우침을 주시겠지 생각했다. 그러던 중 한 신부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나는 이 대화 안에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 나는 누구며,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가진 역량과 능력의 한계를 동그라미로 그려보았다. 돌이켜보니 나의 짜증, 불만, 아쉬움, 후회, 아픔 등은 대부분 두 가지에서 기인했다. 첫 번째는 동그라미 밖에 있는 것들을 바라는 데서 오는 것이었다. 내 동그라미가 실제 내 능력보다 크다고 생각하고, 내 능력 밖의 것을 바라고 쫓아다니면서 오는 것들이었다. 두 번째는 내 동그라미 안에 있어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오는 것이었다. 그러니 결국 동그라미 안에 있는 나의 능력과 역량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동그라미 밖에 있는 일은 하느님 뜻대로 겸허히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다. 늘 미친 듯이 목표만 바라보고 조바심내던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한 현실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은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봐." 하며 나를 토닥거리 주고,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불성실이나 때 이른 포기 때문에 오는 가책의 아픔을 사전에 예방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 얼굴도 환해지고, 심지어 밥 먹는 속도도 느려졌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예전에 폭풍 몰아치듯 나를 다그치던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일의 결과나 질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만 보태졌다고나 할까? 일하고 돌아와서 거울을보며, 요즘 말로 ㅋㅋㅋ 할 때가 많이 늘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마태 11,29-30).

"아! 그랬었구나!!" 이 복음을 읽으며 무릎을 쳤다.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다.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내

능력의 한계가 멍에요, 내 능력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안식을 얻는 것이리라. 이 깨달음을 얻는데 25년 가까이 걸렸다. 깨달음을 얻은 것이 너무나 기쁘고 대견스러워 집사람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더니 아주 간단한 대답이 돌아왔다. "그걸 이제 알았어? 난 당신 보면서 어차피 안 될 일인데 왜 저러 난리를 치느냐? 늘 그렇게 생각했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으니 회사생활 하면서 평안하기만 할 수야 없겠지만, 그래도 "나를 받아들임"이 가져다준 평안은 하느님의 은총이리라.

◆박용만 실바노 | (주)두산 회장

이건 알아주세요!

전교를 하는 중입니다. 입교를 원한다면 자꾸만 "개종하면 앓 좋은 일이 생긴다"며 망설이기만 하니까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어떻게 설득할까요?

선교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세상이 하느님을 이해하도록 애를 쓰거나 믿음을 설득하지도 강요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상대를 설득할 방법을 궁리하기보다 주님의 큰 사랑을 구체적으로 느끼도록 대하는 일이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아직 '약하고 어린' 영혼이라는 점에 각별히 유념하기 바랍니다.

매사에 "좋은 것은 간직하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 (1테살 5, 21~22) 하는 술선수범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탁월한 선교 자세입니다. 일관된 사랑을 살아내는 모습이야말로 귀하고 '너무 좋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세상이 추구하는 축복과 전혀 다른 차원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믿음은 땅의 고통을 면제받거나 기적적으로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자녀로 승격되는 엄청난 도약임을 솔직하고 분명히 밝히는 일도 주저하지 마세요.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삶'은 늘 겸손과 이해와 배려로 증거되며 평화의 멍에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끈기와 인내로 간절히 기도하며, 더 수고하고 훨씬 더 사랑할 각오로 임한다면 그분께서 선교의 용사로 우뚝 서게 하실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확장을 가장 원하시는 그분의 도움에 굳게 의탁하세요.

◆도움말 : 장재봉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